

## 포르투갈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논의 동향

(2012. 2. 23)

- ◆ 포르투갈 야권, 재계, 노동계는 구제금융 실사단(EU, IMF, ECB)에게 추가 자금 지원과 긴축계획 이행에 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
  -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이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구제금융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

### 1. 추가 구제금융 논의 배경

- 각계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, 포르투갈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긴축정책 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스와 같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.
- (긴축계획 이행) 지난해 780억유로의 구제금융 승인받으면서 약속한 2013년 9월 채권시장 복귀, 2012~2013년 정부지출 규모를 GDP의 3.4%로 유지 목표를 위한 긴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.
  - 구제금융 담당 트로이카(EU, IMF, ECB) 및 전문가들은 포르투갈이 그리스와는 달리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긴축계획 이행상황을 높이 평가
  - 포르투갈 정부는 노사쌍방 대표들과 해고 비용과 휴가일 축소에 대한 협약에 서명하였고, 민영화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룸.
    - 빅터 가스파르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지난 여름 취임 이래 세금 인상, 임금과 연금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를 이행하여

정부부채를 30% 정도 줄임.

- (경제상황 악화)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했으나, 부채를 상환할 기초체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.
  - 당초 포르투갈의 긴축안은 2014년 포르투갈이 2% 이상 경제성장을 이루고,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로 설계되었으나, 현실은 이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음.
    - GDP 대비 부채비율은 구제금융 지원 전 107%에서 최근 118%로 상승하였음. 이는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후퇴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(뉴욕타임즈 2.14)
  -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마이너스 1.5%. 올해 마이너스 3% 기록할 전망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, 실업률은 2011년 4/4분기 14% 기록

\*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그리스 위기가 포르투갈로 전염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었던 1월말에는 17%, 포르투갈이 구제금융 관련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독일의 전망이 제기된 이후 2월 21일 현재 12.58% 기록

## 2. 포르투갈의 추가 구제금융 요구내용

- (정계 입장) 중도좌파 사회당 안토니오 세구로 총재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리스본을 방문한 구제금융 실사단에 게 재정 긴축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.
  - 또한 긴축조치에 따른 혹독한 경기침체와 기록적인 실업률은 국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,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인 고용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

\* 구제금융 실시단(EU, IMF, ECB)은 구제금융 780억유로 중 기지원된 400억유로 집행내용을 확인하고, 구제금융 승인조건인 긴축정책의 이행정도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149억유로를 추가 지원 예정

- (재계 입장) 안토니오 사라비아 포르투갈 경제인연합회(CPI) 회장은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없다면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며, 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
- (노동계 입장) 아르메니오 카를로스 노동조합연합(CGTP) 의장은 2월 23일 트로이카 실시단을 만나 구제금융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며, 포르투갈 정부에게 구제금융 금리와 상환기간, 재정목표 달성 시한 등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
  - 또한 오는 3월 24시간의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며, 공무원과 경찰, 군인들도 긴축정책 이행에 반대할 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음.
- (정부 입장) 포르투갈 수상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는 국제 채권단에 게 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, 국제 채권단이 포르투갈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

### 3. 향후 전망

- 포르투갈 정부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긴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70% 수준으로, 결국 추가 구제금융과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  - 포르투갈의 국채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계획대로 부채를 줄이고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 (국제금융협회)

- 포르투갈이 내년 9월 만기가 도래하는 90억유로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지만 국채수익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능 (월스트리트저널)
- 포르투갈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부채위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며(IMF), 포르투갈에 필요한 추가원조액은 300백억~500백억유로가 될 것 (골드만삭스)

\* 독일 키엘세계경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벤체크는 “포르투갈의 부채가 한계수위에 달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으며, 포르투갈 실물경제를 보면 미래에 성장할 만한 구조가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.”고 지적

<자료출처 : Le Parisien(2.21), Financial Times(2.21), Les Echos(2.16), New York Times(2.14) 등>

[파리사무소]